

일본,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무역보험제도 개선

-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13년 만에) 개정,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 무역보험제도의 재검토 의도는 리스크를 기피하는 일본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함

□ 해외진출 리스크 보장 확대

- 일본정부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전해 주는 무역보험제도를 개정하여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 경산성은 가을 임시국회에 무역보험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보험(NEXI)을 통해 내년부터 새로운 보험을 도입할 계획
- 알제리에서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신흥국의 리스크가 표면화되어, 2001년 일본무역보험 도입 이후 처음(13년 만에)으로 법안을 개정

□ 일본의 무역보험 적용 사례

- 일본의 무역보험은 지금까지 주로 한국이나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선박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대급 일본산 벌크선을 유럽계 해운회사가 구입하는 자금에 대해 무역보험을 적용
- 스미토모상사가 오시마조선소(나가사키)에 발주하여 유럽으로 수출하는 선박에 대부보험을 적용
- 화물선 구매자는 기어벌크(Gearbulk)로 상선미쓰이가 49%를 출자, 기어벌크의 구입자금은 미즈호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융자하였고, 미즈호은행의 융자금 4,200만 달러를 무역보험에서 인수
- 국제석유개발제석(INPEX)이 추진하는 아프리카 유전개발에도 무역보험을 적용,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지원
- 국제석유개발제석은 '12년 8월 아프리카 남서부의 앙골라 앞바다에 있는 유전권익의 9.99%를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TOTAL)과 무역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계약

- 일본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신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하여 19개국을 무역보험 대상국으로 지정,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일본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한도를 20억 달러로 확대

□ 무역보험제도의 개정안

- 개정법안의 핵심은 테러, 폭동, 자연재해 리스크 보장 등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금 조건을 완화하는 것
- 현행법에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철수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함
- 사업 중단 시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손해, 사업 재개까지 필요한 인건비, 자재의 보관비 등의 비용도 보험으로 보장
- * 2013년 1월, 발생한 알제리 테러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건설회사 닛키(日揮)는 플랜트공사를 계속하겠다고 하여 무역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개정 법안에는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포함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를 경감

< 무역보험 개정안 >

-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 1년 이상의 장기자금만 보장했으나, 향후는 1년 미만의 연결융자도 보험 대상에 포함
- 인프라 수출이나 자원개발 안전은 상대국 정부의 인허가가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1년 미만의 연결융자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

	현행법	개정안
테러·폭동 손실보장 강화	'사업 철수' 시에 한정	'사업 일시 중단' 시도 가능
해외 자회사의 보장 강화	해외 무역보험기관을 통한 재보험계약만 가능	직접 계약도 가능
금융기관의 보장 확충	기업을 위한 장기 대부금만 적용	1년 미만의 연결융자도 추가
금융기관의 보장 대상 확대	일본 금융기관의 융자에 한정	일본기업에 대한 해외금융기관의 융자도 추가

- 일본기업의 해외자회사나 외국자본과 합병한 회사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리스크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법에서는 상대국의 무역보험기관과 재보험을 맺지 않으면 해외 일본기업의 손실을 보장할 수 없었음
- 경산성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해외자회사는 '11년 3만 6,000사로 10년 동안 2배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으로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베정부는 6월 발표한 성장전략에서 현재 연간 10조 엔 규모의 인프라 수출액을 '20년까지 30조 엔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일본기업들의 해외 진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

□ 시사점

- 무역보험의 적용 조건 완화는 해외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우려하는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수출을 늘리고 싶어도 수출대금 회수 리스크가 크고 자금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어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도 무역보험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본이 무역보험의 적용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해외진출에서 양국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반면, 제3국 공동 진출 사업은 일본의 무역보험 계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일 기업 간의 협력에 의한 제3국 진출이 활발해 질 가능성도 있음

<참고자료>

닛케이신문(2013.3.26, 7.3, 9.4)